서준이의 여섯 살 생일

풍선이 돌아왔어



글·그림 올레길



“서준아, 일어나렴. 오늘은 여섯 살
생일이란다!” 할머니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눈을 떠 보니 민트색 풍선이 둥실 떠 있었어요.
“우아, 내 풍선이다!”



판다 친구도 축하하러 왔어요. 서준이는 빨간 풍선을 판다에게 건넸어요. “판다야, 꼭 잡아! 놓치면 하늘로 날아가 버려.” 판다가 끈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도 한번 잡아 보세요!” 판다가 풍선 끈을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할머니가 끈을 등 뒤에 쏙 숨겼어요. “어디 갔을까? 풍선 끈이 사라졌네!” 서준이는 할머니 뒤를 요리조리 쫓아다녔어요. “할머니, 다 보여요!”



“나도 잡고 싶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빈손을 쏙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잡아야지.”



서준이는 민트색 풍선을 생일상에 꼭 묶었어요. 판다가 끈을 잡아 주고, 할머니가 매듭을 당겨 주었지요. 이제 풍선은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케이크에 촛불 여섯 개가 켜졌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와 판다가 노래했어요. 서준이는 볼에 바람을 가득 모아 후우우!



서준이는 첫 번째 케이크 조각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같이 먹어요.” “아이고, 우리 서준이 다 컸네.” 여섯 살 생일은 달콤하게 저물었답니다.

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서준이의 여섯 살 생일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